



### 삼국유사 인물학 유행(遊行)

용천사가 「혜성가」를 지은 까닭은?

# 오해로 인한 민심 불안 향가로 해소

#### 1. 천재지변에 대한 대응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천재지변을 가장 두려워 하였다. 천지자연의 변화무쌍함은 사람들에게 그 어떤 존재보다도 무서움으로 다가왔다. 특히 평시에는 잘 나타나지 않는 일식과 월식을 비롯하여 수시로 나타나는 태풍, 비락, 홍수, 가뭄, 지진, 별레떼 등의 출현은 커다란 공포심을 조성하였다. 해서 고대인들의 천재지변에 대한 대응책은 과학적이지는 못했지만 그 나름대로의 고민의 산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신라인들은 노래의 효험을 오랫동안 귀중히 여겨오면서 이러한 천재지변조차 향가를 지어 물리치고자 하였다. 월명사와 총담사와 함께 등장하는 용천사 역시 천재지변을 물리치는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

『삼국유사』「감통」편의 ‘용천사 혜성가’ 조목은 천재지변을 물리치는 노래의 효험에 대해 잘 보여주고 있다. “제5 거열랑(居烈郎)과 제6 실처랑(實處郎) 혹은 突處郎과 제7 보동랑(寶洞郎) 등 세 화랑의 무리가 풍악산(금강산)에 놀러가려는데 혜성(彗星)이 나타나 심대성(心大星)을 범했다. 낭도들이 의아스럽게 생각하여 그 여행을 그만두려 하였다. 이때 용천사(融天師)가 노래를 지어 불렀다. ‘예전 동쪽 물가/ 건달과(乾達婆) 놀던 성 바라보니/ 왜군 왔다는/ 봉화 올린 곳도 있구나/ 세 화랑 산으로 간단 말 듣고/ 달도 부지런히 밝혀/ 길 밝히는 별 보고/ 혜성이여! 라고 알린 사람 있다/ 아! 달 아래로 떠가더라/ 이와 어울릴 무슨 혜성 있을꼬.’(양주동 역) 혜성의 변화가 즉시 사라지고 일본 군사도 자기나라로 돌아가니 도리어 경사가 되었다. 대왕이 크게 기뻐하여 화랑들을 금강산에 보내어 놀게 하였다.”

여타의 조목에 견주어 이 기록은 매우 짧지만 여기에는 향가의 기능에 대한 암시가 들어있다. 경덕왕에게 “신승은 단지 국선(國仙)의 무리에 속해 있어 향가는 알아도 범성(梵僧)은 모릅니다”라고 대답한 「도술가」와 「제팔매가」의 작자 월명사나 「천기파랑가」와 「안민가」를 지은 총담사처럼 용천사는 승려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주술사(呪術師)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월명은 ‘피리를 잘 불어 밝은 달을 멈추게’ 했던 이므로 ‘월명’ (月明)이라 하였고, 총담은 ‘백성의 안녕을 직언한 충언의 담론을 제기’ 하였기에 ‘총담’ (忠談)이라 하였던 것처럼 용천은 ‘천기나 천체의 유행을 조절하고 융화하였다’ 는 의미에서 ‘용천’ (融天)이라 하였다. 이들 세 사람은 모두 이름 뒤에 ‘사’ (師)를 붙이고 있어 이름 앞에 ‘석’ (釋)자를 붙이는 승려들과 구분되고 있다.

아마도 이들은 풍월도의 사면과 승려를 결합한 특별한 집단 계층의 일원으로 짐작된다. 이들은 범성(梵僧)을 부르는 정통 승려와 구분되는 특수 집단 계층의 일원으로서 나라의 재앙과 국가적 혼란을 물리치는 치리가(治理歌) 혹은 주술가(呪術歌)적 성격을 지닌 향가를 부르는 가인(歌人)들이자 풍류객이었다. 또 월명사와 총담사와 용천사는 14·15세~17·18세의 미소년들로 이루어진 화랑들을 보좌하는 승려 낭도의 일원이었다. 용천사의 이름이 암시해 주는 것처럼 그는 ‘하늘과 소통하여 하늘의 운기를 주재할 힘을 가진 이’였다. 그가 노래를 지어 부름으로써 혜성의 변화가 사라지고 일본군도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이처럼 용천사는 염력과 주력을 통해 자

연과 교감할 수 있는 승려이자 주술사였다.

#### 2. 혜성의 등장 사례

방위상으로 보면 신라는 중국의 동쪽에 자리해 있으며 창천(蒼天) 아래에 자리한 나라이다. 때문에 신라인들은 동쪽 나라의 가장 중심에 자리한 심대성(心大星)을 신라의 상징 또는 국왕의 상징으로 여겼다. 이들은 심대성에 어떤 조짐이 일어나면 이를 국가의 안위나 국왕의 신변과 연결시켜 생각하였다. 해서 재앙의 별인 혜성이 국가와 왕을 상징하는 심대성을 범했다는 것은 중대한 국가적 변고의 조짐으로 보았다. 심대성은 우주 전체를 중앙과 8방위로 나눌 때 동방 즉 창천(房星)과 심성(心星)과 미성(尾星) 세 별의 하나로서 동방에서 가장 중요한 별이며 천왕(天王)이라고 불렀다.

반면 혜성은 장성(長星), 패성(彗星) 등으로 불린다. 고대인들이 매우 꺼리는 별로서 재앙의 별 혹은 불길의 별로 여겨졌다. 이 별이 천공에 나타나게 되면 전쟁의 발발과 국운의 쇠미 그리고 왕권의 위축 등의 조짐으로 보았다. 그런데 진평왕 대에 긴 꼬리를 그리는 별로 불리는 혜성이 심대성을 범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해서 진평왕은 국가의 근간을 떠받치는 청소년 수양단체인 화랑들의 풍악산 유람을 금지시켰다. 『삼국사기』를 통해 용천사가 부른 「혜성가」의 작사 시점인 진평왕 대를 기준으로 고대 사극에 혜성이 나타난 사례를 살펴보자. 진평왕 원년에 해당하는 백제의 위덕왕 26년 조에는 “장성(長星)이 출현하여 하늘에서 마치고 20일이 지나서 사라졌다”고 적혀있다. 위덕왕 41년(진평왕 16년)에는 “혜성이 각항(角亢)에 나타났다”고 적혀있다.

여기서 ‘각항’은 28수(宿) 중 동궁의 별자리를 가리킨다. 천궁을 360도로 잡을 때 심대성과는 45도의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별이다. 천문학에서 말하는 헬리오텍의 76년 주기설에 의하면 607년(진평왕 29)년에도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진평왕 재위 54년 기간 동안에 위덕왕 16년과 29년 등 세 차례에 걸쳐 28수(宿) 중 가장 중심자리에 있는 별인 혜성이 나타났다. 각항이란 별이 나타난 현상에 대해 왕은 매우 두려워했고 용천사를 불러 「혜성가」를 짓게 한 것이다. 「혜성가」의 삼화(三花)는 세 화랑을 가리킨다. 그리고 화랑도를 구성하는 여러 부대가 단체 유람하던 풍악산의 유람단에 의거해 보면 제5, 제6, 제7과 같은 차례 숫자는 부대이름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몇 가지 정보와 이해 위에서 이 조목을 다시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흥조를 상징하는 혜성 즉 일본이 동방의 큰 별인 심대성을 범하자 신라 왕실은 큰 혼란에 직면했다. 다시 말하면 붉은 줄을 그리며 나아가는 혜성이 동방의 큰 별을 상징하는 신라와 진평왕을 범하자 왕은 나라의 위기임을 직감하고 나라를 지키는 임무를 지닌 화랑도들의 산행을 파기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은 하늘의 질서와 땅의 질서를 하나로 보았던 신라인들의 세계관에서는 방관할 수 없었기에 취해진 조치였다. 용천사는 천체의 일종인 혜성을 인정하면서도 흥조의 여지를 없앨 수 있는 묘안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해서 그는 혜성의 이름을 바꾸어 ‘길쭉별’이라고 불려주었다. 당시의 사 용례를 보면 혜성을 ‘소성’ (掃星) 즉 ‘빗자루’ 또는



진평왕 16년 혜성이 나타나 신라의 상징인 심곡성을 범하자 왕실과 백성들이 불안에 떨었다. 용천사는 혜성가를 지어 혜성이 흥조가 아님을 알렸다. 사진은 혜성 모습

#### 향가부른 이들은 주술가이자 승려 혜성 나타나 민심 흥흥...백성 불안 왕은 화랑도의 산행 금지 등 계엄령 선포

‘빗자루 모양의 별’로 해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혜성이 불길한 별이 아니라 ‘화랑이 가는 길을 쓸어 주는 길한 별’로 태어나게 한 것이다. 이러한 작명(作名) 속에는 신라인들의 탁월한 현실감각이 반영되어 있다.

#### 3. 「혜성가」의 해석

이 노래의 맥락과 해석에 대해서는 양주동과 김완진을 비롯하여 다양한 연구자들의 주장들이 있다. “옛날 동(東)쪽 물가/ 건달과(乾達婆)의 논 성(城)을 랑 바라고/ 왜군(倭軍)도 왔다/ 햇불 올린 어여 수 풀이여/ 세 화랑(花郎)의 산(山) 보신다는 말씀 듣고/ 달도 갈라 그어 찾아들려 하는데/ 길 쓸 별 바라고, 혜성(彗星)이여 하고 사ړ된 사람이 있다/ 아아, 달은 떠가 버렸더라/ 이에 어울릴 무슨 혜성(彗星)을 함께 하였습니까.”(김완진 역) 「혜성가」에서 주목되는 것은 혜성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나와 함께 ‘건달과’와 ‘건달바성’ 그리고 ‘왜군’의 의미이다. 심대성을 범한 혜성은 왜군일 수도 있고 왕실의 적일 수도 있다. 살펴본 것처럼 혜성은 국가의 안위나 국왕의 변고일 수 있다. 그렇다면 건달과와 건달바성은 무엇을 암시하는 것일까.

건달과는 불법을 지키는 여덟 명의 호법중인 팔부신(八部神將)의 하나이다. 그는 부처님의 설법하는 자리에 나타나 불법을 찬탄하고 불교를 수호하는 제

석(帝釋)의 음악을 맡은 천락신(天樂神)이다. 지상의 보산(寶山) 중에 있으며, 술과 고기를 먹지 않고 향기만 맡으므로 식향(食香), 후향(?香)이라고 하며, 생명이 탄생하는 세 가지 조건 중의 하나인 간다르바는 중음신이 그 다음에 태어날 곳의 냄새를 찾아다니므로 심향행(尋香行), 심향(尋香)이라고 한다. 인도에서는 음악을 직업으로 하는 악인(樂人) 또는 배우(伎樂)를 가리킨다. 그는 음식의 향기만을 찾아 그 문 앞에 가서 춤을 추고 노래를 하여 음식을 얻어 살아가기 때문이다. 건달바성은 늘 천상에 있는 건달바가 실제 없이 공중에 나타내는 성곽 또는 바다 위나 사막 또는 열대지방에 있는 별판의 상공에서 공기의 밀도와 광선의 굴절작용으로 일어나는 신기루(蜃氣樓) 혹은 해시(海市)를 일컫는다.

신라인들은 예로부터 신라가 불국토이고 왕은 전륜성왕이며 화랑은 마리의 현신이라고 여겼다. 해서 이곳 신라를 과거 장엄검의 비바시불-시기불-비사부불로부터 현재 현검의 구류손불-구나함모니불-가섭불-석가모니불로 이어지는 불연국토(佛緣國土)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불국토의 동쪽 앞 바다에 불법을 수호하는 건달바성이 생겨났다. 건달과는 불교 우주관에서 보면 사천왕천 가운데 동주(東洲)인 지국천(持國天)의 다라타천왕(多羅天王) 아래에서 그를 지키는 일을 하는 호법신장이다. 그런데 불국토인 신라의 동쪽 앞바다에 성 모양의 신기루가 생겨나자 동해가의 봉화지기는 이 신기루를 왜군의 선단이 신라를 공격해 오는 것으로 오해하여 봉화를 올렸다. 실상가상으로 혜성이 심대성을 범하는 조짐이 일어났다. 신라 왕실은 전 국토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친위군인 화랑도의 금강산 유람을 중지시켰다.

그런데 용천사가 자세히 살펴보니 이것은 왜군의

#### 용천사 흥조를 없앨 수 있는 묘안 ‘혜성가’ 작사... ‘길쭉별’로 이름 신라왕실과 백성불안에서 건져

선단이 쳐들어온 것이 아니라 동해가의 신기루가 나타난 것일 뿐이었다. 해서 그는 “옛날에도 동쪽 물가에/ 건달과가 놀던 성이라고 생각하고/ 왜군이 쳐들어온다고/ 봉화를 올린 일이 있었지 않나/ 세 화랑이 풍악산에 오른다는 말씀 듣고/ 달도 부지런히 밝히려는데/ 길쭉별을 바라보고/ 혜성이라고 사ړ된 사람이 있구나/ 아, 아, 달 아래로 떠가버리더라/ 이와 어울릴 무슨 혜성이 있겠느냐”라고 노래를 불렀던 것이다. 용천사는 이 노래를 불러 어지러운 신라 왕실을 일깨워 줌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불안해 할 필요가 없음을 역설해 주었다. 그리하여 그는 하늘의 질서에 대한 신라인들의 오해를 융화시켜주고 바로잡아 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을 편안히 해 줄 수 있었다.

#### 참고문헌

김부식, 『삼국사기』, 신유열 역주(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일 연, 『삼국유사』, 권상로 역주(동서문화사, 1978; 2007; 2010).  
양주동, 『고기연구』(일조각, 1975).  
김완진, 『향기해독법연구』(서울대출판부, 1983).  
이도훈, 『신라인의 마음으로 삼국유사를 읽는다』(무문역사, 2000).  
이범교, 『삼국유사의 종합적 해석』(하, 2005; 2007).  
고영성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불교 공부사전**

확철한 편저/국판 양장/404쪽/20,000원

사전식으로 구성한 불교 입문서!

불교를 공부하려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표제어를 선정하고, 그 표제어와 관련된 다른 항목들도 함께 설명함으로써 표제어뿐만 아니라 그를 둘러싼 제반 사항들을 포괄적으로 알 수 있게 하였다.



**해탈장엄론**

티벳불교의 대표적 수행서이자 기본 교과서!

불도에 들어서면서부터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이루고 중생에게 회향하기까지의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제시한 티벳 최초의 람림서!

갑뽀빠 저, 진우기 역 / 신국판 양장 / 628쪽 / 28,000원



**선과 뇌**

아리타 히데호 · 겐유 소규 저 / 이성동 옮김 / 국판 / 252쪽 / 13,800원

좌선은 위대한 뇌훈련법이다!

뇌신경을 연구한 생리학 교수와 작가이자 선승인 임제종 승려가 과학적 실험과 선적 체험을 바탕으로 풀어놓는 좌선과 명상의 효과!